



실재의 역습 Attack of The Real

— 구병모 소설집, 『고의는 아니지만』(자음과모음, 2011)

양윤의

고의는 아니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다. 나의 의도와 의지는 행위의 어느 지점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 의도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할까? 의도와 의지에 대해서라면 칸트에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칸트가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정념적pathological인 행동을 비판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은 이런 행동이 이성적인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타율적인 선택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칸트가 말하는 정념은 이성의 반의어가 아니라 자율성의 반대 말이다. 병리적인 증상을 보이는 자들이 비판받을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행동이 비이성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외부적인 원인에서 기인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원인을 규명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책임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여기 『고의는 아니지만』에 등장하는 이들의 경우는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

표제작 「고의는 아니지만」의 F는 사명감 있는 유치원 교사다. 그녀는 스스로를 “성실한 교사의 표본”이라 여긴다. 실제로 그녀는 원아들이 나오되지 않도록 하려 깊게 행동했으며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귀가 길에 술 취한 인부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만다. “그들 중 누구도, 충만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그런 사람은 없었”(p. 100)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라도 그 사태를 멈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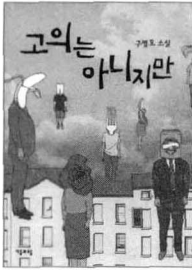
러나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의도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취 상태로 근처에서 검거된 용의자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며 그녀가 담장 너머에서 자신을 모욕했기에 처음에는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을 뿐인데 반항하자 그만, 절대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고 그녀 또한 악의를 갖고 당신을 모욕한 게 아니라고 빌었으나 이미 때는 늦어버리고 목을 쥔 손에는 힘이 너무 들어가버린 다음이어서 —라는 요지의 말을 횡설수설했다고 전해진다. (「고의는 아니지만」, p. 109)

사건의 전말을 간추려도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의도를 갖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아주 약간의 차이(손에 깃든 힘)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사태는 벌어졌고 우리는 그 사태를 추수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자유의지가 개입할 곳이라고는 없는 세계에 산다. 의도하지 않은 사건들이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세계에서 이들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서 있는 형국이다.

여기 소개되는 사건들은 단지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이유를 댈 수 있든 그렇지 않든 그와 무관하게, 언제나 사건은 발생한다. 의도가 감추어진 세계, 우리는 이 세계를 원인이 감추어진 세계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의도가 특정한 결과를 낳는다면 의도가 관철되는 세계야말로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낳는 세계가 될 것이다. 구병모의 소설은 바로 이 의도와 결과, 나아가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단락에서 소설의 상황을 길어 올린다. 이를 “마치……같은”(As if~)의 증발 혹은 실재의 출현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녀를 죽일 것처럼 화가 났지만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다’에서 ‘마치 ~ 처럼’을 삭제한 세계는 실재가 그럴듯함을 습격attack하여 파괴한 세계다. 그래서 마침내 ‘그녀를 죽이고 싶도록 화가 나서 나는 그녀를 죽였다’와 같은 문장이 탄생한다. 고의는 아니지만.

구병모의 소설은 ‘마치 ~ 처럼, ~ 같은’의 사라짐과 그 너머의 외설적인 실재의 부상으로 특징지어진다. 시장이 괴물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시장



이 괴물로 변해 있다(「마치……같은 이야기」). 어느 날 도로의 구멍에 처박힌 남편이 남처럼 느껴지는데, 결국은 완전한 남이 되어버렸다(「타자의 탄생」). 눈물의 근원을 막아버리고 싶다고 말하자, 모든 감각 세포가 봉합된다(「재봉틀 여인」). 잘못하면 새가 와서 우리를 쪼아댈 것 같은 불안을 느끼자, 정말로 새들이 날아왔다(「조장기」). 자유의지란 사실은 ‘마치 ~ 처럼’을

재인(再認)하는 의식의 작용이다. ‘나는 그녀를 죽이고 싶었지만(마치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의도를 되돌려 예정된 파괴적 결과를 회피하는 힘, 그것이 자유의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유의지가 사라진 곳에서 발현되는 저 무시무시한 현현이야말로 실재의 역습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재는 상징화에 저항하는 견고한 핵이다. 여기서 주체와 그가 속한 사회의 관계 속에 ‘강요된 선택’이라는 역설적인 지점이 드러난다. 사회는 주체에게 말한다. 당신은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것을 선택한다는 조건 속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것을 선택하면서 마치 자신이 이미 선택했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이다. 자유의지란 저 회피와 역습 사이에 끼여 있다. 구병모의 소설은 바로 이 딜레마를 현시하는 것이다.

● _문학평론가. 2006년 중앙신인문학상으로 등단.

호모 포에티쿠스Homo poeticus의 경이로운 초상

— 조 현 소설집, 『누구에게나 아무것도 아닌 햄버거의 역사』(민음사, 2011) _이 학 영

소설가 조현은 스스로를 클라투 행성 지구 주재 특파원으로 소개한다. 과연 그의 첫 소설집인 『누구에게나 아무것도 아닌 햄버거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과 화자들은 이계(異界)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